

서울 국제환경저널리스트 대회

제1주제 : 한국의 사례

때 : 1994.6.12~17

장소 : 서울신라호텔

주제논문 : 이응수(동아일보 편집위원)

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친 한국의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비롯되며 이 계획은 정부가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경제개발에 모든 국력을 모으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외국의 차관에 의한 자본의 형성과 기술의 도입 및 국내의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산업화를 추진하려는 것이었다.

중화학공업에 기초한 이 개발전략은 때마침 국제분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과 맞물리면서 외국 특히 일본의 사양산업들이 쉽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산업이 비록 에너지 다소비의 산업이거나 공해다발형의 사양산업일지라도 이를 값싸게 들여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자본이나 기술이 절대적으로 빈약했던 한국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쉽게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었다.

법적인 장치도 오직 개발 성장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외자도입법 등 개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새로운 법률들이 생겨난 가운데 공해방지법도 1963년에 제정됐다. 이 법은 사실상 경제개발을 위한 외자도입에 필요한 절차와 구색을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공해방지법의 시행령은 69년에야 제정됨으로써 그동안 이 법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 환경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틀을 갖춘 것은 70년대의

후반이었고 80년대에 들어서 환경권이 기본권의 하나로 헌법에 등장한 것이다.

특히 누대에 걸친 가난을 벗기 위해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당시 정부는 「잘 살아 보자」는 슬로건을 내걸어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따라서 환경오염 등 개발에 저해되는 모든 요인은 당국에 의해 무시, 은폐, 억압되곤 했다. 이러한 개발 및 경제 성장정책도 삶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성장만을 위한 것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가속화되는 자본의 투입은 성장과 함께 공해물질의 배출도 아울러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성장제일주의에 따른 법적, 행정적인 지원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환경비용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기피됐으며 이것이 사회비용으로 전가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의 산업화과정은 필연적이고 원천적으로 공해 환경문제를 잉태하고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대가는 공해 및 환경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들 공해 및 환경오염은 개발 성장이 빠른 만큼 짧은 기간내에 집중적이고 중점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이하다. 국내에서의 환경문제는 공해병에서 출발한다. 70년대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 질병은 주로 수출공단지역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 이것이 언론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환경언론은 산업종사자들이 공해물질에 노출돼 각종 공해성 직업병환자가 발생하는데서 비롯된다. 경제성장에만 주력한 나머지 작업환경을 돌보지 않아 근로자들의 건강이 환경오염의 바로미터로 나타나면서 언론이 사회감시자로서 새로운 사회변화의 핵심으로 등장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했던 것은 당연하다.

국내의 언론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또 하나의 원인은 외신을 통해 들어오는 환경에 대한 전지구적인 경고와 생활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망이 환경언론의 자극제 구실을 했다.

국내에서 환경언론에 대한 평가는 대략 3단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암흑기 : 이 시기는 군사정권의 수립과 개발이 시작된 60년대를 시작으로 하여 유신정권이 유지된 3·4공화국이다.

당시 정부는 「지금 환경문제를 따질 때냐」며 행정력을 동원하여 언론이 환경문

제를 다루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려 했다. 당시 박대통령은 언론이 공해문제를 들추어 내는 것을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프레스카드제, 대변인 제도, 특수기관의 취재 제한 제도 등이 언론의 목을 죄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도 이때다.

직접적인 통제보다 뉴스원의 차단이 환경언론의 어려움을 더해 주었다. 환경관련 인사들을 반체제인사로 간주하거나 극히 일부의 환경관련 연구보고서들은 대외비의 도장이 찍혀 창고에 사장되기 일췌였다.

일부학자들은 그들의 연구를 공개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다. 환경고발성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 자료를 제공한 학자들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따랐다. 이들에게는 권고사직 등의 불이익이 이어졌다. 환경자료의 비공개 습관은 아직까지 공무원사회에 팽배돼 있는 악습이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감춰지게 마련이었다.

당시 서슬이 퍼런 정권에 대항하는 재야는 오직 「군사독재」 「유신타도」의 목소리만 높여 국토와 국민들이 환경오염에 병들고 있는데 눈돌릴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다. 언론도 정치권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투쟁기 : 성장의 열매를 따기 시작한 1980년대에 출범한 제5공화국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면서 아울러 환경공해문제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출발했다.

1980년대에 정부기구로 환경청을 만들었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접근을 위한 조직 인력 투자가 역부족이었다. 기업에서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표출되고 있는데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보다 현실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근로자들의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해기 : 최근에는 환경운동을 생명운동으로 보려는 새로운 시각들이 차차 생겨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환경문제가 단순히 오염물질에 의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해의 수준을 넘어 「자연과 함께 있는 인간」이란 생태적 본질에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환경언론의 문제점은 환경문제를 극히 표피적인 보도로 일관하거나 사건성 기사로 다루었다. 이것은 결국 환경문제를 흥밋거리로 만들어 근원적인 해결을 하

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언론은 여가성 혹은 계절성에 민감하다. 환경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한 피상적이고 지나친 센세이셔널리즘에 영합하는 결과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전문성을 가진 기자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문제를 사건기사화하는 방법은 시정돼야 한다. 환경문제를 사건기사화함으로써 선정적이고 과장된 보도를 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의 심각함과 중요성을 흥밋거리로 다룰 가능성이 많아진다.

국내의 취재원을 다원화시켜 환경문제가 정부자료에 의한 일방적 소식으로 정부의 의도대로 유도됨을 막아야 한다. 주어지는 자료들은 현장 중심의 현실적인 기사보다 자료제공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 오보를 할 위험이 있다.

그 외 환경문제를 정치투쟁의 무기화로 사용하는 집단에 이용되는 언론의 오류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해석보다 언제나 반대논리가 우선하는 현실에서 종종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선전하는 그룹이 있다. 복지사회를 위한 언론의 역할은 의식개발과 행동유도로 요약될 수 있다. 의식개발은 친환경적인 사상에 기초하는 새로운 미래의 윤리에서 비롯돼야 한다.

이러한 윤리는 장기적으로 낙관론에 근거해야 한다.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 및 파괴문제가 과학기술의 산물이라면 과학기술이 이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다. 개개인이 한 방울의 물, 한 조각의 종이, 한 등의 전기를 스스로 아껴 쓰는 것은 물론, 다시 쓸수 있는 물건을 재활용하는 「재활용 알뜰 사회」(Recycle Society)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이익만 챙기다가 함께 멸망하는 「공동목장의 비극」(The Common Tragedy, Garrett Hardin)을 막기위해 자기 절제와 함께 각자가 사회감시자의 기능도 해야 한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한다. 사회교육의 중요한 기능자로서 역할하는 언론도 건강한 환경을 가꾸기 위한 계속반복적인 교육으로 의식의

개발에 이어 행동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시민운동은 가장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의 표현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것」(Think Globally, Act Locally)
은 언제나 온 지구들이 곱씹어 볼 가치가 있는 귀중한 경구다.